

초저유황 경유 공급 “문제없다”

정유4사, 초저유황 경유 생산설비 강화 ... 장기적 설비확충 절실

정유4사와 정부가 초저유황 경유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 가닥을 잡아가면서 정유4사의 초저유황 경유 공급이 준비단계에 들어섰다.

2006년부터 공급될 초저유황 경유는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조기 도입을 권고해와 정유기업들은 이전부터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준비해온 상태이다.

초저유황 경유의 공급이 가장 원활한 정유기업은 S-Oil로 수첨탈황시설(Hydro Desulfurization Unit)을 통해 하루 11만5000배럴의 저유황 경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일본이나 홍콩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또 중질유 분해·탈황시설(Bunk-C Cracking Center)은 저유황 벙커C유를 생산하는 중질유 탈황시설로 초저유황 경유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사우디 Aramco와 합작으로 1조원을 투입했으며 아라비안라이트 기준 하루 56만배럴의 원유를 고품질의 휘발유, 경유, 등유로 생산하고 있다.

정유기업의 초저유황 경유 생산설비

정유기업	생산설비
S-Oil	수첨탈황 및 중질유 분해 시설
현대Oil-Bank	초저유황 탈황시설
SK	메로스공정 강화
LG-Caltex정유	촉매공정 강화
인천정유	

현대Oil-Bank도 2004년 5월17일 청정연료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초저유황 경유 생산에 나섰다.

2005년까지 총 2100억원을 투입할 청정연료사업은 프랑스 Axens와 덴마크 Haldor Topsoe로부터 제조기술 사용권 획득을 조건으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완공되면 현대Oil-Bank는 하루 6만배럴의 초저유황 경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SK도 기존의 정유공정을 보완하고 FCC 및 메로스 공정을 강화하는 등 탈황시설 보완과 초저유황 경유 생산에 준비를 마쳤고, LG-Caltex정유와 인천정유도 촉매공정의 강화를 통해 언제든지 초저유황 경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S-Oil을 제외한 4사는 초저유황 경유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다량의 촉매공정 때문에 원가상승 부담을 안고 있어 정부의 인센티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정유기업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초저유황 경유의 공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과다 투입되는 촉매공정을 지양하고 유황성분이 적은 원유 도입이나 탈황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24>